

소아 미세변화 신증후군에서 Interleukin-4 활성화도 및 mRNA 발현에 관한 연구

경희의대 소아과, KIST 유전공학 연구소*

조병수, 이충은*, 변광호*

소아 미세변화 신증후군(MCNS) 환자의 말초혈액 B-림프구에서는 저 친화성 IgE 수용체 발현이 증가되어 있으며, 또한 이는 혈청내 Interleukin-4 level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IL-4에 의한 B 세포의 반응도는 MCNS 군과 정상대조군 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지만 MCNS 환자의 T-세포의 IL-4 mRNA 발현이 의미있게 증가된 점으로 보아 본 질환이 T-세포에 의한 질환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mitogen 으로 활성화 시켰을때 높은 IL-4 mRNA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배양 T 상청액의 IL-4의 활성화도와 IL-4 mRNA 와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IL-4와 상반된 작용을 하는 Interferon- γ mRNA 발현은 MCNS 군과 정상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MCNS는 T-세포 장애 특히 IL-4의 과발현(over-expression)이 발병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A20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의 조직조건을 보인 특발성 신증후군 환자의 장기추적 관찰

허 준, 하 일수, 정 해일, 최 용, 고 광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 교실

특발성 신증후군 환자중 신생검상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을 보이고 5년이상 장기추적이 가능했던 39명에서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에 따른 각각 반응군간의 장기 추적 결과를 비교하고, 병리학적 조건에 따른 장기 추적 결과를 비교하여, 예후 관련 지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평균 관찰 기간은 8년 8개월이었고, 남아가 31명, 여아가 8명이었다. 정중 발병 연령은 5년 7개월이었으며 12개월에서 12년 11개월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39명의 장기 추적상 정상 신기능 유지율은 5년에 95%, 10년에 73%였다.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반응에따라 완전관해군, 부분관해군, 불응군으로 분류하여 각각 23명(59%), 13명(33%), 3명(8%)였으며, 각 군간에 발병연령, 성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고혈압, 혈뇨, 당뇨, 단백뇨 선택지수, 크레아틴 청소율 등의 임상 소견과 사구체경화증, 간질세뇨관의 변화정도 등의 병리학적 소견에서도 3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병리 소견상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에 따라 분류하여 20%이상인 군(16명)에서 정상 신기능 유지율은 각각 5년, 10년에 각각 87.5%, 71%를 보였고, 20%이하인 군(23명)에서 5년, 10년에 95%, 82%를 보였다. 간질 세뇨관의 변화에 따라 분류하면 중등도이상의 변화를 보인 군(14명)에서 정상 신기능 유지율이 5년, 10년에 각각 85.7%, 70.7%였고, 경도이하 군(25명)에서는 각각 95.8%, 79.5%였다.

결론적으로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반응으로는 장기경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병리학적 소견으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과 간질세뇨관의 변화정도가 예후인자로서 중요하다.